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진행 도지사가 매년 계획 수립... 지역자재 우선권 등

좋은 시절 지나가는 제주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최근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도내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및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실제 올해 9월말 기준 도내 건설수주액은 346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52억원보다 28.7% 감소했다. 공공부분은 11.6% 줄어 감소 폭이 적었지만, 민간부분(51.4% 감소)의

경우에는 공사규모가 작고 계약 건수도 크게 줄면서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형국이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 건축공사 수주액이 2265억원으로 24.3% 줄었고, 토목공사는 1195억원으로 35.7% 감소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규정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권장 규정 ▷지역 생산 자재·장비 우선 사용 규정 ▷공동도급 활성화 규정 등 4가지를 신설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먼저 활성화 계획 수립은 제주도 지사가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돼 수

뇌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나머지 3개는 권장 혹은 적극 노력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에 명시됐다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에 명시돼도 강제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도내 건설업계 활성화에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활성화 수립 계획의 경우 처음 이뤄지는 것인데 예년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을 총괄하는 제주도 건설과 입장에서라도 행정이나 상하수도본부 등에 조례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라며 "향후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추진과 함께 학술 용역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신규 건설업체 늘면서 부실업체도 속출

제주시, 내달까지 실태조사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정체 추세에 있음에도 건설업체 신규등록 건수는 전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실·불법업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전체 건설업체 수는 10월말 기준 2201개사(종합건설업 439, 전문건설업 1762)가 등록돼 있다. 이는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의 76.3%이다.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건설업체 신규 등록건수는 172개사(종합 22·전문 150)로 전년 대비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부실·불법업체 증가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올해 초부터 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여부 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보유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난달까지 등록말소 92건, 영업정지 84건 등 279

건의 행정처분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229개(종합 82·전문 147)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록말소)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청소년문화미당서 잔디인형 만들기
한글 만들며 즐거운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건축문화기행, 역사·자연 품은 여행상품으로

서귀포시, 테마별코스 발굴 올해 10차례 시범투어 진행 기초·심화과정 해설사 양성 내년부터는 정기투어 계획



16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참가자들이 제주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포도호텔이 어떻게 설계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미숙기자

"제일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호텔 외관은 객실 하나하나가 포도알로 연결돼 전체적인 외관은 포도송이를 닮았고, 지붕은 제주의 전통 초가를 형상화했어요. 제주마을을 주제로 꾸며진 호텔 내부 곳곳에선 밖으로 열린 창과 테라스가 자연과 빛을 끌어들이고, 올레길을 따라 배치된 객실엔 제주의 원래 지형을 그대로 살린 건축가의 자연주의 철학이 스며 있어요."

서귀포시가 7월부터 시작해 10차례 선보인 '서귀포시 건축문화기행' 시범투어 마지막 일정이 16일 안덕면 본대박물관, 포도호텔, 방주교회에서 진행됐다. 본대박물관은 안도 타다오, 포도호텔과 방주교회는 이타미 준이 설계한 건축물로 거장의 작품들은 제주자연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다.

(유)풍남에 위탁, 매회 선착순 예약을 받아 해설사가 동행한 건축문화기행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도민과 이주민 300여명이 참여하며 새로운 여행상품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생활을 접고 제주로 이주한 박정조씨는 "건축문화 시범투어 중 한 차례 빠른 모두 참여했는데,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주 발견이었다"고

말했다. 건축문화기행은 서귀포시 곳곳에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통·근현대 건축물을 활용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를 들여볼 수 있도록 수 년동안 기획해온 상품이다. 2015년 농림부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돼 2016-2017년 5억2000만원을 들여 건축과 여행방주교회에서 진행됐다. 본대박물관은 안도 타다오, 포도호텔과 방주교회는 이타미 준이 설계한 건축물로 거장의 작품들은 제주자연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다.

10개 코스별 테마는 ▷전쟁과 근대건축(남제주비행기역기념, 강병대교회 등) ▷추사파라 가는 길(대정성지, 추사관 등) ▷녹차밭기행(오설록 티뮤지엄, 제주하우스 등) ▷이중섭과 예술가의 길(이중섭미술관, 자구리해안 등) ▷한국건축 거장(구 제주대학 농과대학, 구 소라의 성 등) ▷21세기 현대건축(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서귀포영화촬영지(신영영화박물관, 서연

의 집 등) ▷목축과 건축(조랑말 체험공원,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등) ▷제주민속탐방(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촌 등) ▷안도&이타미(포도호텔, 본대박물관 등)다. 건축문화기행 진행을 위한 해설사 양성과 2017년부터 시작해 기초·심화·보수과정을 마친 11명이 배출돼 활동중이고, 올해 29명이 전문가 답사를 통해 테마별로 10개 코스를 발굴했고, 건축문화기행 브랜드와 네이밍도 개발했다.

특히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내년부터는 관심있는 도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정기 코스를 운영해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고순환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제주만의 정취와 역사를 품은 서귀포건축문화기행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서귀포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남아공 더반서 제주 자연·문화유산 알리다

제주의 UNESCO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및 문화정책이 다시 한번 세계 각국에게 전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방문단 대표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전 세계도시 관계자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제6회 세계지방정부연합(이하 'UCLG') 월드 총회에서 제주의 자연·문화유산과 국제 문화정책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유라시아·태평양 총회 세션에서 제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과 제주해녀 문화를 비롯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등 국제 문화정책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등 제주의 자연, 문화의 가치와 우수성을 참가자들에게 소개했다. 전 부지사는 "제주는 지속가능한 도시 완성을 위해 문화, 환경 등 우수한 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UCLG와 더불어 세계의 도시, 단체들과 협력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3·대한민국 현대사 한눈에 도청 1청사 별관서 특별전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도청 1청사 별관 1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현대사 기록물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전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의 주요 역사적 사건이 담긴 사진 및 제주4·3 관련 사진 등 90여 점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다 ▷제주4·3을 생각하다 등 소주제로 나눠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710-2208. 조상윤기자

2019 소상공인 경영 아카데미 SNS(블로그) 마케팅 전략교육

교육기간 | 2019.11.28(목)~29(금) 10:00-17:00

교육대상 | SNS(블로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중·고급단계의 예비창업자 또는 기존 소상공인

신청자격 | 스마트폰 소지 및 활용 가능자 (NAVER 회원가산 지원금)

일시	교육내용	세부내용	강사
11월28일(목)	13:00-15:00 (2시간)	블로그 이해와 주제설정	블로그 변형과 트렌드
	15:00-17:00 (2시간)	블로그 가입 및 검색설정	블로그 가입 및 검색설정
11월29일(금)	10:00-12:00 (2시간)	블로그 키워드 찾기	이동환 고문관 전무
	13:00-15:00 (2시간)	블로그 모바일 플랫폼의 이해	인원일 플랫폼의 이해 블로그 검색량 활용하기 이웃 소식보내기
	15:00-17:00 (2시간)	블로그 글쓰기	블로그 포스팅 실습

장소 | 제주시 연복로 33(KT&G건물), 4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의실

모집규모 | 30명 내외(선착순 접수, 교육비 무료)

신청방법 |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접수

문의 | ☎ 064)758-5710 김민애 주임 | www.jejusc.kr | Fax 758-5712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 위촉 공고

여성가족부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에 속한 청소년선도 단체로서 전도에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을 위촉합니다.

모집부문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 43개 읍·면·동 지역회장(남·녀)

모집기간
2019년 11월 4일(월) ~ 11월 20일(수)까지

제출서류
이력서(연락처 기재)
증명사진 2장(청소년유해환경감시위원 신분증 부착)

제출처
우편번호 63225 제주시 연삼로 470번지

※ 전화 746-1318 ※

사)제주청소년연합도지부장

분묘 연고자를 찾습니다.

본 분묘 소재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531번지

본 분묘(쌍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분께서는 토지주나 인근 마을리사무소, 행정기관(서귀포시청, 안덕면사무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10-8664-6567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래조생	3년생
맹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